

열장의 사진(영상)으로 업무를 기록한다면
3:4:3 비율로 사진을 찍자!

복지영상 이성종
www.visualwelfare.net

	객관적인 기록(3)	설명하는 기록(4)	공감하는 기록(3)
사진 속 피사체 사이즈	Full Shot 	Middle Shot 	Close Up Shot 
카메라와 찍히는 사람과의 거리	전체를 볼 수 있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행사장의 앞, 뒤 	상황을 알 수 있는 보통의 인관관계를 맺는 거리 행사장의 중간 	가까이 다가가는 1미터 이내의 거리 참가자와 밀접한 
촬영자와 찍히는 사람과의 관계	공식적인 	공식적인/아는사람 	친근한/공감하는 
프로그램 시간대별	시작, 중간, 끝	시작 전, 중간, 쉬는 시간, 끝난 후	중간, 쉬는 시간, 끝난 후, 일상
사진의 용도	보고, 증빙, 보도	과정, 서비스 설명	상상, 공감, 이야기 거리, 사례
사진에서의 눈 높이	성인어른의 눈높이 높은데서 내려다 보기 	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	상대방 입장에서의 바라본 

사진을 찍는 것은

시인이 시에 쓸 글 재료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.

운동주의 '별헤는 밤' 시를 통해

사진 단어의 크기와 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.

<p>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.</p>	<p>(Full Shot ; 전체적인 분위기나 시작을 알 수 있는, 별빛을 볼 수 있는 하늘을 멀리서 바라본다든가, 감옥에 있는 시인이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 같이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줌)</p>
<p>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는 듯합니다.</p>	<p>(Middle Shot ; 하늘을 올려다 보는 시인의 얼굴 표정) (CloseUp Shot ; 눈동자 흔들리고)</p>
<p>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</p>	<p>(Middle Shot ; 창살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) (CloseUp Shot ; 손으로 벽에 글을 쓰는 행위라든가, 창살을 움켜 쥐)</p>
<p>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.</p>	<p>(Middle Shot ; 달빛에 의해 생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우고,) (Full Shot ; 창살 밖 담벼락의 모습과 초소 보이고) (CloseUp Shot ; 바닥에 글을 쓰는 손등의 건강한 혈관 모습)</p>
<p>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, 어머니...</p>	<p>(Full Shot ; 창살을 붙잡고 하늘을 올려다 보는 시인) (Middle Shot ; 오래된 영상효과로 감옥에 오기 전 상황들 나열) (CloseUp Shot ; 시집, 필기구로 글을 쓰고 있는 손, 정성이 가득한 글씨가 쓰여진 편지) (Full Shot ;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를 부지런히 달려가는..) (Middle Shot ; 부엌에서 내다보는 어머니 모습)</p>

한 편의 시에서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문장과 시인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는 문장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처럼 사진(영상) 단어를 골고루 기록해 놓아야 설명하고 설득하는, 때론 깊이 공감하게 하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.

카메라를 들고 기록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다양한 영상단어를 확보하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, 그냥 발품을 팔 것이 아니라 위의 비율처럼 객관적인, 설명하는, 공감하는 사진을 골고루 기록해야 합니다.

참고로 객관적인 사진은 누구나 기록할 수 있지만, 설명하고, 공감하는 사진은 애정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.

1. 한 눈에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

(Full Shot, Start Final Cut, 단체사진, 기념사진, 몇명이 왔구나, 장소 넓으네. 전체적인, 개회식, 폐회식등의 규모를 알 수 있는, 멀리서 거리를 두고 찍은, 모두 모이세요, 하던 일을 멈추고 여기를 보세요, 플래카드 잘 붙잡아 주세요, 카메라를 봐주세요)



행사장의 앞, 뒤에서 전체적인 인원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.
 ‘촬영’, ‘취재’ 이런 네임택을 착용하고 다니면서(아! 저 사람이 오늘 촬영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게합니다) 행사 시작전 부터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면 쉽게 촬영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한 장의 사진으로 행사를 압축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 보도자료로 과거에는 많이 쓰였지만, 요즘에는 잘 쓰이진 않습니다.
 그렇지만, 행사에서 반드시 기록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진입니다.

2.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기록

(Middle Shot, Bust Sho, Waist Shot, KneeShot, 2~3Shot, GroupShot)

누가, 어떻게, 무엇을, 궁금한 것을 설명해 주는, 의견이 표현되는, 인터뷰, 참가자의 태도, 노트필기 모습, 경청의 다양한 리액션들, 프로그램 속 사람들의 반응, 어떻게 오셨나요?,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?, 참가소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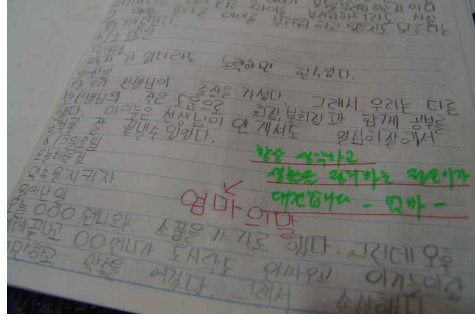


아이들이 무언가를 적고 있네 / 아! 방학 시간표를 만들고 있는 거구나
 설명하는 기록은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?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발견하는 것을 기록합니다.
 한 장의 사진 속에 한 가지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여러 장의 사진 단어가 모이면 훌륭한 설명 자료가 됩니다. 블로그에 후기 같은 것을 올릴 때 이런 사진이 많으면 사진의 나열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됩니다.

3. 그래서 그렇구나 공감하게 하는 기록

(Close Up, Tite Bust, Big Close Up, Feel Cut, Heart View,)

왜, 어떻게, 이유, 감정을 느낄 수 있는, 가까이 다가가서 발견하는, 노트필기 내용, 슬픔 기쁨 분노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소품, 당연하죠, 그럴 수도 있죠,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, 여기에 밑줄 친 이유는? 무엇을 마음에 담아 가나요?



카메라 앞에서 네, 아니요, 그냥요.. 짧게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자기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면 술술 이야기가 나옵니다.

노트의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숨겨진 질문들을 찾아내면 함께 해온 선생님도 모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.

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섬세한 힌트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
이렇게 기록된 다양한 사진을 가지고

글을 읽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사진을 나열하면 훌륭한 보도자료가 되고,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콘텐츠가 됩니다.

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객관적인, 설명하는, 공감하는 내용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있는가?

연구하고 비슷하게 써보다 보면 훌륭한 보도자료를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15일 '꿈의 독창무대' 서는 홀트일산복지타운 문경화양
[동아일보 2005-11-01 04:37]



[동아일보]
 “도산이에(동산 위에) 오아서서(올라서서) 파라아느울(파란 하늘)...”
 어색한 발음에 틀리기 일쑤인 음정이지만 수많은 청중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게 돼 꿈만 같다.
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경기 고양시 홀트일산복지타운의 혼성합창단 ‘영혼의 소리’ 단원 문경화(17) 양. 정신지체 1급이면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녀가 3년 동안 노래 한 곡을 외워 15일 오후 7시 서울 초암아트홀에서 독창을 한다. 이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자리에서다. 곡목은 ‘하늘나라 동화’.

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습능력이 낮은 문 양이 노래 한 곡을 외운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두툼한 책 한 권을 외우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.

공감하는 글귀의 제목
호기심 유발

공감하는 상황의 묘사

설명하는 인터뷰 내용

객관적인 상황

설명하는 인터뷰 내용

설명하는 인터뷰 내용